2)편의점 앞 파라솔 자리, 소주 한 병이 4분의 1도 안 남았고 맥주 두 캔이 각자 앞에 놓여있다. 종이컵과 과자 봉지 등도 보인다.

**수정**, 야, 알바트로스 서식지가 어딘지 아냐? 갈라파고스거든, (추궁)너 근데 알바트로스 알지? 세상에서 제일 큰 새(그걸 몰라?하는 느낌), 서양인들이 깃털 착취할려고 다 잡아 죽이다가 겨우 멸종은 안 됐대. 자, 근데 그 알바트로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냐.

**승영**, (숙인 고개를 젓는다)

**수정**, 서식지를 지키면 되겠지. 그래서 사람들이 보호구역도 정하고 뭐 그런 거도 했겠지.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에 뭐에 국립공원 지정에, 멸종위기 종 몇 단계 어쩌구저쩌구(조소)… 덕분에 갈라파고스는 깨끗해졌어. 근데 그래도 걔들이 죽어나가는 거야. 새끼들도! 배를 갈라보니까 비닐에 뭐에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왔대. 과학자들이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봤더니, 어미 알바트로스가, 뭐 아비일 수도 있겠지(비아냥), 암튼 어미 알바트로스가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 먹이를 구하러 (자그마치)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다 온다는 거야. 그러니까 말하자면, 멕시코 옆 바다까지 갔다가 수면에 떠있는 무언가를 먹이로 알고 잡아채 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돌아와 제 새끼에게 먹였는데 그게 그 아이를 죽인 거야. 그러니까 무슨 이 지구에 종을 지키려면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에서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. 서식지만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고.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거야. 모든 게 전 지구적인 거지. 이 새우깡 봉지도 누가 알아. 바로 이 새우깡 비닐이 어디로 갈지 알아. 나이브하게 뭐 소각장으로 가네 매립지로 가겠네 막연히만 생각하지, 근데 이게 바다로 흘러가서 거북이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거야 고래가 될 수도 있고 큰 새가 될 수도 있지 그들은 아버지를 잃거나 딸을 잃는 건지도…

**승영**, (말을 끊으며, 고개를 숙인 채, 양팔로 머리를 감싼 자세다) 그만해,

**수정**, (놀라서)…야

**승영**, (잠시 뒤에)미안